

사이버도박 2319명 검거... 1조원대 사이트 운영조직도

총책급 도박사범 검거 집중 베트남 거점조직 63명 적발 1072억 기소전 몰수·추징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7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사이버도박 사범을 2000명 넘게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2319명(1746건)이며 154명이 구속됐다. 국내·외를 오가며 판돈만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검거에 집중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특히 경남경찰청은 5년간 베트남에서 1조3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6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불법 사이트의 주소와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경찰은 387억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재추경합정도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5년간 3385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7개월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1072

억 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배 늘어난 수치다. 운영 자금줄을 끊어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외제차, 예금계좌를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75명에 대해서는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중 필리핀·캄보디아 등에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한 15명을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전문으로 제작·공급하는 해당 업체를 추적할 방침이다. 검거된 피의자는 연형대별로 30대(24.7%)가 가장 많았고, 20대(23.6%), 40대(22.1%), 50대(12.9%), 10대(10.3%), 60대 이상(6.4%) 순이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작년 감염병 환자 14만명... 20%↓ 백일해·수두 감소... 제1급은 0건

CRE 감염증·성홍열은 증가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가운데 일부는 감소하고 성홍열 환자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간한 '2025년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접수감사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는 총 13만 9388명(인구 10만명당 272명)으로 2024년(17만4908명) 대비 20.3% 줄었다.

제1급 감염병(18종)은 2024년과 2025년 신고 건수가 비슷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제2급 감염병(21종) 신고 환자는 12만 4939명으로 전년 대비 20.0%(3만1178명) 줄었다. 이 가운데 백일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방역이 완화되면서 2024년 접수 감시 이후 최대 규모로 유행했지만, 2025년에는 88.6%(4만2557명) 감소했다. 수두 환자와 같은 기간 3만1892명에서 3만2489명으로 5.2% 줄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외에 카바페넴내성장대세균족(CRE) 감염증과 성홍열은 CRE 감염증이 60대 이상에서 전체 발생이 86.5%, 성홍열은 0~9세 발생이 8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제3급 감염병(28종) 신고 환자는 12만4299명으로 전년 대비 23.2%(4362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쓰스카루시증 신고 환자는 전년 대비 45.7%(2863명) 감소했는데 최근 감염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신고 기준을 정비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질병청은 분석했다.

반면에 레지오넬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전년 대비 각각 41.6%(188명)와 64.7%(110명) 증가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700명 내외로 신고됐지만 코로나19 유행 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 606명, 2025년 63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슷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bo.co.kr

부산 양대 조폭간 보복폭행 가담 20대 징역 1년10개월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와 철성과 사이의 보복 폭행에 가담하고 흉기를 소지한 20대 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효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와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7일 오전 2시11분경 부산 수영구 한 길거리에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철성과 조직원인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철성과 조직원인 신20세기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자 보복할 상태 조직원을 찾아다니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bo.co.kr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외친다.

27일 서울 종로구 열린노동자연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친다.

연남뉴스

헌재 "가상 아동성착취물 배포시 '징역 5년 이상' 합헌"

접근·연락 금지조치 상습위반 '가정폭력' 40대 남편 실형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은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법원의 임시 보호조치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수백차례나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정종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12월 아내 B씨를 폭행한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담 구성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460여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책임·형벌 비례 원칙에 합당 N번징역 사회적 엄벌 요구!"

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위헌소원 청구인 B씨는 2019~2020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 만화를 제작하고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

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들은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하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헌재는 위헌제정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면서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며 입법 배경을 짚었다.

이어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묘사 대상의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비교해) 위헌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무자본 주택 47채로 138억 광통전세 사기

법, 4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오리스팅과 빌라 40여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금금 138억원을 가

로렌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오리스팅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리스팅이나 빌라 소유주들이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 통

해 계약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매매로 나온 주택을 가계 약한 뒤 전세 입찰인으로부터 부족한 보증금을 받아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최주희 기자 look7780@siminibo.co.kr

인천대학교 만원릴레이 안내

만원릴레이는 대학발전기금으로

1만원을 기부하고 그 기부가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를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대학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희망을 선순환합니다

善

※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캠페인 → 만원릴레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fund.inu.ac.kr

032-835-8080

